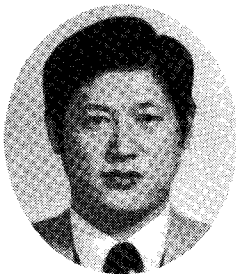


맥주도 1위, 환경보전도 1위

OB 맥주로 더 잘 알려진 동양 맥주(주)는 주택가와 수도 서울의 젓줄인 한강에 인접해 있는 지역 조건으로 인하여 식품회사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환경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였다.



이 응 재
(동양 맥주(주) 환경관리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등 국제 행사를 앞둔,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동향은 국제 수준의 신제품 개발에 한층 박차를 가하여, 단맛을 내는데 주로 사용되었던 설탕도 G-스위트, F-스위트 등의 저칼로리성 천연 대용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서양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맥주가 소개된 이래 35년의 역사를 지닌 동양 맥주(주) (1952년 5월 22일 설립)가 병맥주에서 캔맥주로 제품 포장을 바꾸어, 그 편리함과 함께 고객의 일상 생활속에 친근감이 익숙해 진지도 이미 오래, 최근에는 저 알콜, 저 칼로리의 「라이트 비어」라는 신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맛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상품의 이름인 OB맥주로 더 잘 알려진 동양 맥주(주)는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수도 서울의 젓줄인 한강에 인접해 있는 지역 환경조건으로, 제품 공정상의 악취를 가능한 줄이고 대기 오염의 원인인 매연을 줄이기 위하여, 일찍부터 폐수 처리장의 환경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시설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로 OB 맥주의 환경팀은 1981년 1월15일 환경청으로부터 1호 표창을 받은 바 있다. OB 맥주는 맥아, 전분, 옥분, 호프, 물 등을 맥주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료의 특성에 따라 생물학적 폐수 처리 방법(활성오니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찌기 '75년 1억 6천만원의 폐수 처리 설비비를 원수조, 로타리 스크린, 침전조, 폭기조, Blower, Aerator 등에 투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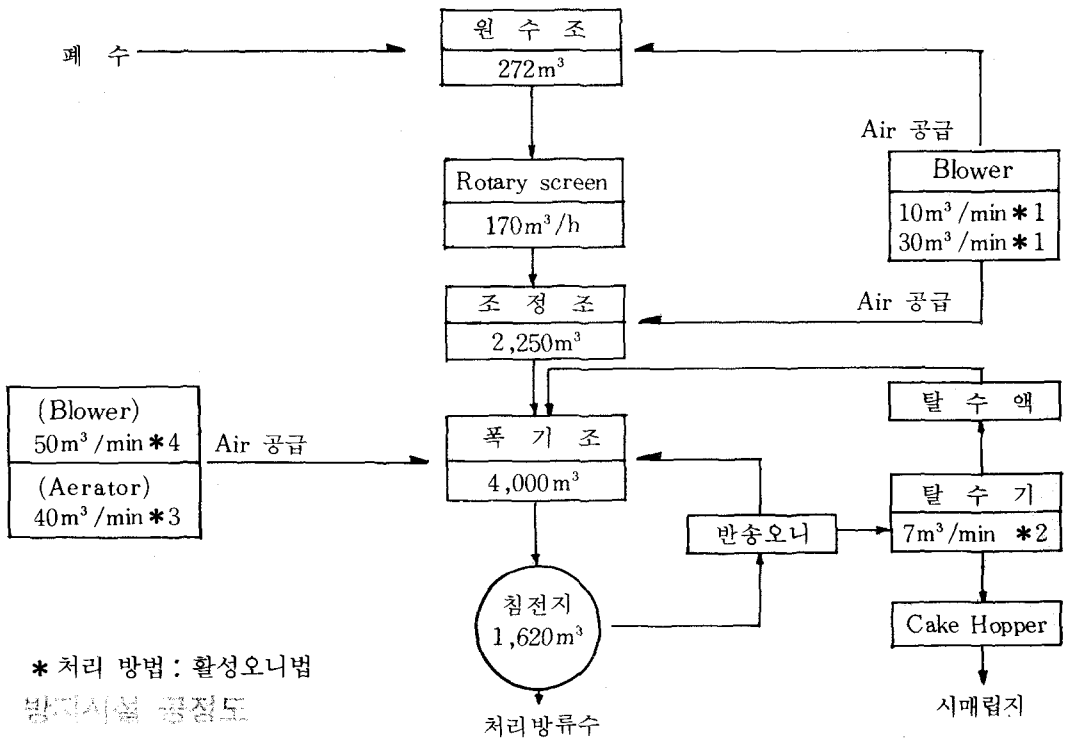
였으며 '83년, '84년에 걸쳐 자동측정 장비를 구입하였고, 조정조를 증설하였으며 최근 '86년, 폭기조 배반전을 교체하여 전체 3억2천5백만원을 환경시설에 투자하였다.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 방법인 활성오니법은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미생물 활성이 저하되어 보통 10℃ 이하의 원수를 스팀을 이용하여 2℃의 온도를 유지하므로써 미생물 활성을 증진시켜 주는데, 월 2천만원, 겨울철을 3개월로 가정하여 6천만원의 경비가 드는 셈이다. 이는, 생산을 위한 폐수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경영주의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일 4000t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는 OB맥주는 원료주입후 맥주가 되기까지의 생산 공정을 거쳐 발생된, 1일 평균 2530t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방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Techno Tight에 의한 침강성 개량 시험을 한 결과, 침전조 수심유지에 적합한 조건과 처리수의 92.5% 회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OB 맥주는 주택가에 인접한 지역 조건과 식품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처리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생산에 관계없는 처리 공정중 세병수를 여과해서 처리 공정상의 살균기 보급수로 이용하여 1일 500t의 용수를 절감하고 있고, 정수장의 역세수를 재처리해서 1일 450t의 용수를 절감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처후에 오니를 갖다 버리는데도 수송비가 들었으나 올 9월부터는 오니를 비료업자에게 팔기로 결정하므로써 폐수 처리후 재활용하는 유일한 사례가 되고 있다.

처리 전후의 배출량 및 성상

항 목	원 폐 수			처 리 수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B.O.D mg/l	1,700	1,000	1,400	50	5	10
C.O.D mg/l	570	330	470	50	5	10
S.S mg/l	550	350	460	30	3	10
동식물유 mg/l	2	-	1	-	-	-
P H	8	4	4.5	7.7	7.2	7.4
스러트지 함수율				85	82	83



* 처리 방법 : 활성오니법
방지시설 공정도